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레드리본 소식

2012년 국내 에이즈 감염자 1만 명 된다



국내 에이즈 환자가 3~4년 후 1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에이즈 감염자는 2007년에 5323명

만 1년에 평균 1000여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는 추세로 미뤄볼 때 2012년쯤에는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한 '국내 에이즈 감염인 통계'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통계에 따르면 1996년 622명이던 에이즈 감염자는 1999년 1061명, 2002년 2005명, 2004년 3149명, 2006년 4579명, 2007년 5323명으로 증가했다. 연간 신규 감염자 수도 2000년 이전까지 평균 100명이었던 것이 2006~2007년엔 각각 750명, 744명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이미 국내 에이즈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는 "보고 안된 감염자, 에이즈에 감염되고도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를 합치면 에이즈 환자가 1만 명 이상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에이즈 환자가 크게 늘고 있으나, 치료는 국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국제에이즈치료의사회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18개국 3000여명의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인식도 조사'를 보면, 한국 환자들여 에이즈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 세계 응답자의 20%가 '에이즈 처방 치료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우리나라는 25%가 치료 경험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약으로 나올 병이 아니라서 ▲치료 부작용이 심해서 ▲에이즈 환자라는 것이 알려지기 원치 않아서 ▲치료비 감당이 안 된다 등이었다. 김준명 교수는 "복용량과 복용 횟수가 많아 에이즈약을 끊어버리는 환자가 많았지만, 최근엔 복용이 간편해져 초기에 약만 꾸준히 복용해도 수명에 영향을 안 미칠 정도가 됐다.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웹스조선: 2008.10.01

중 에이즈 감염자들, '편견'과 '차별'에 죽어간다

중국의 에이즈(AIDS) 감염 환자들이 불필요한 차별 의식과 편견 등으로 큰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에이즈퇴치계획(UNAIDS)'의 보고에 따르면 6개 도시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6000명의 중국인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에이즈 감염 환자와 함께 사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또 이들 중 5분의 1 이상은 친척 가운데 에이즈 감염 환자가 있을 경우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와 전체의 5분의 1 이상이 에이즈 감염 환자와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에이즈에 전염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6000명 중 10%에 가까운 이들이 에이즈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IDS 양성반응자이면서 남아공 헌법재판소 법관으로 재직 중인 에드윈 카메론은 "중국 정부가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매우 훌륭한 관리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 대다수가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카메론은 현재 중국에서 에이즈 질병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주위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에이즈 감염 테스트를 받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카메론은 "에이즈 감염 환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불필요한 편견으로 더 큰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다"고 힘설했다. 중국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지난해 총 7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에만 약 5000명의 추가 감염자 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 2008.10.30

'에이즈 치료백신, 4~5년 안에 나올 것'

에이즈 바이러스(HIV)를 최초로 발견한 공로로 금년도 노벨의학상을 공동수상한 프랑스의 뤼크 몽타니에 박사는 8일 에이즈를 완치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에이즈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치료백신 앞으로 4~5년 안에는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몽타니에 박사는 다음 주 노벨의학상 시상식에 앞서 이날 스톡홀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에이즈는 예방백신보다 치료백신 개발이 더 쉽기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레드리본 소식

문에 연구비 지원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3~4년 안에 에이즈 치료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파스티르 연구소의 웅타니에 박사는 자신과 함께 HIV를 처음으로 발견한 같은 파스티르 연구소의 프랑수아즈 바레시누사 박사, 그리고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를 발견한 독일의 하랄트 추어 하우스젠 박사와 함께 금년도 노벨의학상을 공동수상 했다.

YTN : 2008.12.08

AIDS 극복을 위한 4가지 지침



'당뇨 · 고혈압처럼 관리 가능한 질병' 국내 AIDS 환자는 2007년 말 현재 5320여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공식 감염자와 외국인까지 감안하면 그 수가 3~4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미 AIDS 환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학

계에서도 연 1000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해 3~4년 후면 공식 환자도 1만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직도 인류를 위협하는 AIDS를 극복하고 AIDS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국제에이즈치료의사협회(IAPAC)에서는 네 가지 글로벌 행동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IDS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에 힘써야 한다.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이제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해 논의할 때다. AIDS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환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AIDS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AIDS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개적인 토론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환자들을 둘러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AIDS 치료를 망설이게 만드는 치료제의 부작용이나 막대한 치료 비용을 개선하고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자들을 위해 치료제의 효과, 약물 투여 계획, 부작용, 내성 등에 관해 자세히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넷째, 체계적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AIDS는 예방과 관리가 모두 가능한 질병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완벽한 예방 백신과 완치 치료제는 없다. 지금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긍정적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DS라는 질병에 대한 선입견과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AIDS가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관리하는 질병'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인권과 의료보건의 사각지대에 있는 AIDS 감염자들을 양지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AIDS 극복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위클리 조선 : 2008.12.02

상처 없어도 에이즈 감염될 수 있다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의 감염 경로는 여태까지 '피에서 피(Blood to Blood)'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성교 때 상처에 상처가 나지 않는 한, 에이즈 바이러스가 상처가 없는 여성의 질 벽을 통과할 수는 없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런 기존 학설을 뒤집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와 에이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페인버그 약대 토마스 호프 교수 팀은 상처가 없는 여성의 자궁 조직을 에이즈 바이러스(HIV)가 뚫고 들어가는 과정을 촬영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HIV가 형광색을 띠도록 조작해 바이러스의 침투 과정을 관찰했다.

관찰 결과, HIV는 질 외벽에 아무 상처가 없어도 침투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았다. HIV는 질 외벽 세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그 중 일부가 죽어 떨어져 나가면서 세포들 사이의 간격이 다소 느슨해졌을 때 세포 사이를 미끄러지듯 침투해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HIV가 질 외벽을 뚫고 침입에 성공하는 데는 4시간이 걸렸다. 침입에 성공한 HIV는 면역 세포를 감염시키면서 면역 시스템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레드리본 소식

여태까지 과학자들은 HIV가 헤르페르 바이러스 등으로 생긴 질 외벽의 상처 등을 통해서만 침입할 수 있다고 여겨 왔다. 그러나 헤르페스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 약물을 처방해도 에이즈 감염은 줄지 않아 이러한 이론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일부 학자들은 HIV가 자궁경부의 상피세포 단일층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 부위를 인공적으로 차단해도 HIV 감염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토마스 호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질 외벽에 아무 상처가 없어도 성교를 통해 남성의 HIV가 여성의 질을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질을 통한 HIV 감염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급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세포생물학회(American Society for Cell Biology) 연례회의에서 16일 발표됐으며,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등이 이날 보도했다.

코메디닷컴 · 2008.12.17

‘포경수술이 에이즈·자궁경부암 위험 낮춰’



포경수술이 남성 본인의 에이즈 및 여성 파트너의 자궁경부암 위험까지도 낮춘다는 논문 세 편이 잇따라 발표됐다. 포경수술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

는 가운데 이번 연구결과 발표로 성관계 시 콘돔사용 외에도 포경수술이 효과적인 성병예방 방법이라는 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베르사유 대 베르트랑 아유베르 박사팀은 남아프리카 남성 1200명을 대상으로 포경수술과 성병의 일종인 인체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포경수술을 받은 남성들에선 15%가 HPV에 감염된 반면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들에선 감염률이 22%로 나타났다. HPV는 성병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자궁경부암이나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유베르 박사는 "이전 연

구에서 이미 포경수술을 받은 남성과 사는 여성에서 자궁경부암 감염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경수술을 받은 남성들은 HPV에 감염될 확률이 낮으므로 파트너 역시 자궁경부암 등의 성병에 감염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美 오리건 보건대(Oregon Health&Science University) 연구팀 역시 '포경수술 받은 남성이 받지 않은 남성에게 HPV 감염위험이 절반 정도에 머문다'는 논문을 추가로 발표했다. 미 질병관리본부(CDC) 리 워너 박사는 포경수술과 에이즈 발병률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연구팀이 미국 볼티모어에 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경수술을 받은 사람에선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 감염률이 10%인 반면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선 22%로 나타났다.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이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워너 박사는 논문을 통해 "포경수술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노출된 남성들의 감염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동성애가 아닌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남성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문 세 편은 17일 발간된 미 감염성질환저널(The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에 실렸다. 이에 대해 존스홉킨스 대 로널드 그레이 박사는 "에이즈 감염위험이 높은 집단인 아프리카 및 스페인계 미국인들에서 포경수술이 덜 보편화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포경수술은 특히 이 집단에 에이즈 및 기타 성병예방의 좋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레이 박사는 신상아들에 포경수술을 권고하지 않는 미 소아과학회(APP)의 방침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그는 "APP 방침의 결과로 국민의료보조 제도에서 포경수술 항목은 제외됐다"면서 "가난한 집단일수록 에이즈 감염위험이 높는데 비싼 비용 때문에 미국 내 포경수술 시술비용은 갈수록 감소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300만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나 자궁경부암이 옮겨 사망하는 여성만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헤럴드 경제 · 2008.12.18